

Be the Author of Your Own Story

정철, 「성산별곡(聖山別曲)」 / 김소월, 「진달래꽃」 / 백석, 「들길에 서서」 / 김종길, 「고고(孤高)」 / 윤동주, 「자화상(自畫像)」 /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 김명인, 「그 나무」 /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鄉)」 / 오세영, 「자화상·2」 / 김기택, 「멸치」 / 오정희, 「중국인 거리」 / 외면성 명제와 관련된 딜레마(법 규범에 대한 칸트의 설명) / 정약용과 최한기의 이기론 비판 / 인간의 색 지각 과정 / 정보 시스템에서 접근제어의 개념과 유형 / 간접 광고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협찬 제도 및 간접 광고 제도 / 박완서, 「엄마의 말뚝2」 / 신경숙, 「외딴 방」 / 최명익, 「무성격자」 / 권호문, 「한거십팔곡」 / 김낙행, 「기취서행」 /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一章)」 / 신경림, 「농무」 / 분자의 기계적 결합 / 재산권의 충돌 / 창자의 용모와 Wnt / 서양과 동양의 천문 이론 / 고고학의 특징 / 박남수, 「아침 이미지1」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 백석, 「고향」 / 김춘수, 「내가 만난 이중섭」 /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안 텃마루」 / 이호철, 「나상(裸像)」

/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 김월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 토지가치세 / 언어와 방언을 대신하는 코드(code) / 모바일 무선 통신 / 자연법의 특징 및 그로티우스의 법철학 / 사회 계층 / 송기숙, 「개는 왜 짖는가」 / 정훈, 「탄궁가(嘆窮歌)」 /

이항,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복효근, 「고목」 / 최승호, 「누에」 / 백석, 「모닥불」 / 신경림, 「귀성열차」 / 박목월, 「나무」 / 송재학, 「흰뺨검둥오리」 /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 폴란드의 역사 서술 /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 조선 시대의 신문 제도 / 냉전의 기원에 관한 논의 / 작자 미상, 「우부가」 / 성현, 「타농설」 / 허준, 「잔등(殘燈)」 / 오정희, 「옛우물」 / 이청준, 「살아 있는 늪」 / 김숨, 「뿌리 이야기」

/ 시각 정보 처리에 있어서 망막 자체의 정보 처리 과정 / 한 개인이나 사회 내에서의 언어적 다양성 / 입체 음향 기술을 실현시키는 바이노럴 효과 / 디지털 영상 기술이 영화에 가져온 변화와 디지털 이미지의 실재성 / 손해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epi

커리큘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개념 완성	■	■									
기출 탐색			■	■	■	■		■			
고난도 기출 탐색								■	■	■	
파이널										■	■
해설강의						■			■		
휴강		■		■		■	■		■	■	
	독서개념 완성 (4주)	문학개념완성 (5주)	기출 탐색(8주 + 8주)				심화 기출 탐색 (6주)	파이널 (4주)			
	생각하며 글 읽기	생각하며 감상하기	기출의 테마 DNA 1.0		기출의 테마 DNA 2.0		심찬우화 N제	우리가 만날 수능			

* 기테마1.0 / 2.0 강의 중 내신 휴강이 각 3주씩 있습니다.

* 설과 추석 연휴는 휴강입니다.

심찬우의 현장은 콘서트장입니다

단과 강의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후 13:30~17:00						대치 예섬 02)558-8822	
저녁 18:30~22:00		목동 시대인재 02)2643-1237	로고스 학원 잠실관 02)416-5540			대치 예섬 02)558-8822	

주요 시험 일정

주관 기관 및 시험 시행 (2026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대상)	
3월 26일(수)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5월 8일(목)	경기도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6월 4일(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7월 10일(목)	인천광역시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9월 3일(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10월 14일(화)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11월 13일(목)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재 및 자료 안내

에필로그 (문제·해설편)

- 에필로그에서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적용해볼 수 있는 지문, 문제 그에 대한 해설을 제공합니다.
- 최근 경향에 맞지 않거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도가 낮은 지문과 선지의 내용 일부에 대해 원본과 달리 조금씩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문제편

- 다양한 문제들을 자주 접할 수 있게 연습 문제를 제공합니다. 빨리 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다룬 접근법과 글을 읽는 태도를 교정하는 데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난도의 경우 초반부에는 쉬운 지문, 옛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배치하였고 이후에는 조금씩 난도를 높여가면서 최근 기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특정 테마에 대한 강훈련을 진행할 때는 고3을 대상으로 한 기출 문제 외의 문제들도 가져와 배치하였습니다.

(2) 해설편

- 문제편에 수록된 지문과 문제에 대한 해설을 제공합니다. 독서의 경우 문제 해설과 더불어 지문 해설이 탑재되며(일부 지문은 수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학의 경우 문제 해설만 제공됩니다. 문학의 경우 지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내부 논의 끝에 문제에 대한 해설만 수록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학에서 질문이 많이 나오는 지문의 경우 선생님과 조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해결해 주세요. 선생님께서 질문이 많이 나오는 지문들의 경우 직접 해설 영상을 촬영하여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 지문과 문제에서 사용하는 어휘 중 학생들이 그 뜻을 잘 모르는 어휘들에 대해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뜻을 그대로 인용하여 수록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어휘의 뜻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용례가 부족한 경우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을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또한 용례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우선으로 한 것은 언중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문학작품에 제시된 문장들로 적시하였음을 밝힙니다.
- 수업에서 진행된 내용은 해당 주차가 끝날 때 오르비 클래스의 '현장 복습 영상' 게시판을 통해 '1주일간' 복습 영상으로 제공됩니다. 단, 온라인 수강생들에게는 복습 영상이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종합반(시대인재 재수종합반)의 경우 복습이 필요한 강의들에 대해서만 내부 논의를 통해 리클래스를 통해 탑재해드립니다. 복습 영상 게시 기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습용으로 영상 수강을 희망하는 수강생들께서는 '오르비 클래스'로 들어가시어 프리패스를 구매하시면 진행되었던 강자들을 모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 복습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주)무브와 공감연구소에 있습니다. 불법 공유 및 다운로드, 판매 등이 적발될 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1 ~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강 녹초변에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흥이 겨워 피리를 빗기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
 내 기운에 나온 학이 제 깃을 던져 두고 반공에 솟아 뜰 듯
소선(蘇仙)* 적벽은 추칠월이 좋다 하되
 팔월 십오야를 모두 어찌 칭찬하는가
 구름이 걷히고 물결이 다 잔 적에
 하늘에 돋은 달이 술 위에 걸렸거든
 잡다가 빠진 줄이 **적선(謫仙)***이 현사할사
 공산에 쌓인 잎을 삭풍이 거뒀 불어
 떼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천공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천림을 꾸며곰 낼세이고
 앞 여울 가리 열어 독목교(獨木橋) 비졌는데
 막대 맨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고
산옹의 이 부귀를 남더러 자랑 마오
 경요굴(瓊瑤窟)* 숨은 세계 찾을 이 있을세라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여하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 할사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한 시운(時運)이 흥망이 있었는고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의 늙은 고블* 귀는 어찌 찢었던고
 박 소리 핑계하고 지조가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야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옛그제 빛은 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잡거니 밋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은 풀리나다

- 정철, 「성산별곡」 -

* 소선 : 소동파를 신선에 빗댄 말.
 * 적선 : 이태백을 신선에 빗댄 말.
 * 경요굴 : 눈 내린 성산의 모습을 빗댄 말.
 * 고블 : 기산에 은거한 인물인 허유.

(나)

생매 잡아 길 잘 들여 먼 산 두메로 꿩 사냥 보내고 흰
 말 구불구종* 갈기 술질 활활 살살 하여 임의 집 송정 뒤
 잔디 잔디 금잔디 밭에 말 말뚝 팡팡쌩쌩 박아 승마 바 고
 뼤 길게 늘려 매고
 앞내 여울 고기 뒷내 여울 고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
 자나 굶으나 굶으나 자나 주섬주섬 낚아 내여 시내 동으로

뻗은 움버들 가지 와지끈 푹푹 꺾어 거꾸로 잡고 잎사귀
 셋만 남기고 주루룩 훑어 아가미 너슬너슬 꿰어 시내 잔잔
 흐르는 물에 납작 실죽 청 바둑돌로 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살짝 자기자 장단 맞춰 지근지근 눌러 놓고
 동자야 이 뒤에 학 타신 **선관**이 날 찾거든 그물 낚시대 종
 이 종다래끼* 파리 밥풀통 고추장 **술병**까지 가지고 뒷내 여
 울로 오라고 일러만 주소

아마도 산중호걸이 나뿐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구불구종 : 말 모는 하인.
 * 종다래끼 : 작은 바구니.

0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인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을 통해 다양한 대상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대구를 사용하여 대조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02.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삭풍’이 가을 잎을 쓸고 간 자리에 구름을 불려와 ‘공산’을 눈 세상으로 만들었다고 한 것에는, 인물이 거처한 공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다.
- ② ‘앞 여울’을 건너가는 노승을 발견하고 ‘경요굴’이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빼어난 경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숨어 있는 세계가 알려질 것에 대한 염려를 통해 드러난다.
- ③ 만족스러운 외적 풍경에서 눈을 돌려 벗이 없는 ‘산중’에서 ‘만고 인물’을 생각하는 것에는, 정신적 세계에 주목하는 태도가, 적절한 상황에 놓인 인물의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 ④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을 ‘시운’의 ‘흥망’에서 발견하고도 모를 일이 많다고 한 것에는, 인물의 담담한 태도가,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 ⑤ 세상을 등진 인물의 삶을 ‘기산’의 ‘고블’에 비유한 것에는, 험한 세상과의 단절과 은거 지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인물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드러난다.

0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고전 시가에서 자연은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진다. (가)의 자연은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 세계로 그려지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탈속적이고 고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다. (나)의 자연은 풍요롭게 그려지는 현실적 풍류의 장으로, 활달하고 흥겹게 놀이를 펼치는 곳이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멋이 고조된다.

- ① (가)의 '용'은 파리 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고, (나)의 '생매'는 고고한 취향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이군.
- ② (가)의 '학'은 이상적 세계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소재이고, (나)의 '고기'는 풍요롭고 생동하는 세계를 표현하는 소재이군.
- ③ (가)의 '소선', '적선'은 청정한 강호의 세계에서 떠올린 인물의 이미지이고, (나)의 '선관'은 '나'가 현재의 행위를 함께 하고 싶은 인물을 멋스럽게 표현한 이미지이군.
- ④ (가)의 '산옹'은 계절에 따른 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 세계의 삶을 지향하는 인물이고, (나)의 '나'는 사냥과 고기잡이를 통해 현실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인물이군.
- ⑤ (가)의 '술'은 강호에서 세상에 대한 시름을 달래 주는 소재이고, (나)의 '술병'은 풍류의 장에 흥취를 더해 줄 소재이군.

[4 ~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낮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湖水)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이육사, 「교목(喬木)」 -

(나)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짧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등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다)

북한산(北漢山)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白雲臺)나 인수봉(仁壽峰)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윈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윈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

0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현재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해소된 조화로운 상태가 구현되어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 있다.
- ④ (가), (나), (다)에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담겨 있다.

05.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유와 상징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 ③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④ 공감각적 표현으로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06. <보기>는 (가)에 대한 심화 학습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백과사전】

이육사: 시인. 1904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 항일 독립 투쟁으로 20여 차례의 투옥 끝에 베이징 감옥에서 옥사함.

· 작품 경향: 저항 의식, 실향 의식과 비애, 초인 의지와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 등을 주제로 삼고 있음. 정제된 형식미와 안정된 운율감을 보임.

· 「교목」: 1940년 『인문평론』 7월호에 발표.

【국어사전】

교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게 자라는 큰 나무.

【인터넷 자료】

· 『맹자』에 따르면, ‘교목’은 오랜 세월 덕을 닦아 임금을 도(道)로써 보필하여 나라를 떠받치는 신하를 의미한다.

· 시인은 빈궁과 투옥과 유랑의 사십 평생에 거의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문학청년은 아니었으나 삼십 고개를 넘어 시를 쓰기 시작했고,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시에 의탁해 꿈도 그려 보고 불평도 터뜨렸던 것이다. (『육사 시집』 발문)

- ① 이 시의 제목은 나라를 위한 시인의 절개와 기상을 표상한 것이다.
- ② 이 시의 행 배열과 연 구성에서도 이육사 시의 형식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 ③ ‘납은 거미집’은 시인의 고난에 찬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④ ‘끝없는 꿈길’은 시인의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함축하고 있다.
- ⑤ ‘바람’은 이국을 떠돌던 시인의 실향 의식과 저항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Be the Author of Your Own Story

정철, 「성산백곡(聖山百曲)」 / 석정, 「들길에 서서」 / 김종길, 「고고(孤高)」 / 윤동주, 「자화상(自畫像)」 /

고은, 「선재리 아낙네들」 / 김명인, 「그 나무」 /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鄉)」 / 오세영, 「자화상·2」 / 김기택, 「벌치」 / 오정희, 「중국인 거리」 / 외면성 명제와 관련된 딜레마(법 규범에 대한 칸트의 설명) / 정약용과 최한기의 이기론 비판 / 인간의 색 지각 과정 / 정보 시스템에서 접근제어의 개념과 유형 / 간접 광고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협찬 제도 및 간접 광고 제도 / 박완서, 「엄마의 말뚝2」 / 신경숙, 「외판방」 / 최명익, 「무성격자」 / 권호문, 「한겨십팔곡」 / 김낙행, 「기취서행」 /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一章)」 / 신경림, 「농무」 / 분자의 기계적 결합 / 재산권의 충돌 / 창자의 용모와 Wnt / 서양과 동양의 천문 이론 / 고고학의 특징 / 박남수, 「아침 이마저」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 백석, 「고향」 / 김준수, 「내가 만난 이중섭」 /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안 뒷마루」 / 이호철, 「나상(裸像)」 /

/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 토지자치세 / 언어와 방언을 대신하는 코드(code) / 모바일 무선 통신 / 자연법의 특징 및 그로티우스의 법철학 / 사회 계층 / 송가숙, 「개는 왜 짖는가」 / 정훈, 「탄궁가(嘆窮歌)」 /

이항,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복효근, 「고목」 / 최승호, 「누에」 / 백석, 「모닥불」 / 신경림, 「귀성열차」 / 박목월, 「나무」 / 송재학, 「흰뺨검둥오리」 /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 폴란드의 역사 서술 /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 조선 시대의 신분 제도 / 냉전의 기원에 관한 논의 / 작자 미상, 「우부가」 / 성현, 「타농설」 / 허준, 「잔등(殘燈)」 / 오정희, 「옛우물」 / 이청준, 「살아 있는 늑」 / 김숨, 「부리 이야기」 /

/ 시각 정보 처리에 있어서 망막 자체의 정보 처리 과정 / 한 개인이나 사회 내에서의 언어적 다양성 / 입체 음향 기술을 실현시키는 바이노럴 효과 / 디지털 영상 기술이 영화에 가져온 변화와 디지털 이미지의 실재성 / 손해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빠른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②	④	①	⑤	①	⑤	③	④	④	④	②	④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③	⑤	②	④	⑤	②	②	①	⑤	⑤	③	②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④	④	③	④	⑤	④	⑤	②	⑤	②	③	②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⑤	⑤	①	②	④	⑤	①	④	③	②	③	③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④	⑤	③	④	②	⑤	④	①	③	④	④	③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③	③	⑤	④	②	②	⑤	⑤	④	①	④	④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②	②	⑤	④	⑤	②	②	③	④	⑤	④	⑤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④	③	①	①	③, ⑤	③	②	⑤	②	⑤	④	④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②	④	③	①	③	④	②	④	①	⑤	④	④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③	③	③	②	③	③	④	④	⑤	②	④	②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①	①	⑤	⑤	①	①	②	③	②	④	②	⑤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④	①	②	①	④	①	⑤	④	③	②	③	②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④	④	③	④	⑤	③	⑤	⑤	①	③	④	①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②	⑤	②	⑤	④	①	①	⑤	②	①	①	②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⑤	④	③	①	④	③	①	③	④	⑤	④	④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②	④	②	③	③	⑤	②	③	①	④		

2024학년도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정철, 「성산별곡」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1번 ~ 3번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②	③	④	⑤
화작	4%	76%	9%	5%	5%
언매	2%	85%	7%	3%	3%

[정답 맞히기]

② (나)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인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 (나)는 여러 음성 상징어를 통해 인물이 하는 행동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가)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가)는 다양한 영탄적 표현, 특히 설의적 표현을 활용한 영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을 통해 다양한 대상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가)는 '청강 녹초변(강)', '경요굴(산)' 등 화자가 인식하는 대상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다양한 대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결국 화자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여러 대상을 인식하며 만족감을 느끼고, 큰 틀에서는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 (나)는 '산', '잔디 밭', '시내' 등 다양한 공간이 묘사되는 것에서 공간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공간에서 화자의 행동이 드러난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가)는 시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화자의 내면세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만족감 ⇨ 내적 갈등(이상과 현실의 괴리)]
→ (나)는 인물의 심리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⑤ (가)와 (나)는 모두 대구를 사용하여 대조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가)는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시한 후, 세사(속세의 일)를 통해 속세가 험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자연과 속세의 속성(특징)을 대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조가 대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 (나)는 다양한 대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산', '잔디 밭', '시내' 등 여러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화자의 행동이 묘사되고 있을 뿐, 대조적 대상의 속성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2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②	③	④	⑤
화작	4%	13%	19%	54%	8%
언매	2%	11%	15%	67%	5%

[정답 맞히기]

④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을 '시운'의 '홍망'에서 발견하고도 모를 일이 많다고 한 것에는, 인물의 담담한 태도가,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 화자는 시운의 홍망이 있는 것을 두고,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것에 애달픔을 느낀다. 또한 세상일은 모를 일이 많다고 생각하며 세상일에 대해 부정적(이현괴)으로 인식한다.

→ 화자의 담담한 태도(⇔영탄) 역시 확인할 수 없다. 화자는 설의적(영탄) 표현을 통해 복잡한 세사를 인식하는 데에서 찾아오는 자신의 애달픔을 강조하고 있다.

찬우의 Pin Point

화자는 하늘의 이치가 구현되어 세상이 흥하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흥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이를 수용하지 못해 안타까움과 애달픔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수용하다 :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 [용례] 새로운 사상을 수용하다.

[오답 피하기]

① '삭풍'이 가을 잎을 쓸고 간 자리에 구름을 불러와 '공산'을 눈 세상으로 만들었다고 한 것에는, 인물이 거처한 공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다.

→ 화자는 자신이 거처한 공간(성산)으로부터 만족감을 느끼고, 자연을 예찬하는 인물이다. '삭풍'과 '공산'은 이러한 화자가 만족감을 느끼는 '성산'에 존재하는 대상(자연)이자,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소재다.

② '알 여울'을 건너가는 노승을 발견하고 '경요굴'이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빼어난 경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숨어 있는 세계가 알려질 것에 대한 염려를 통해 드러난다.

→ 화자는 '앞 여울'을 건너가는 '노승'을 발견하고 '산옹'의 '부귀'를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숨어 있는 세계(경요굴)'의 빼어난 경치가 속세의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빼어난 경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③ 만족스러운 외적 풍경에서 눈을 돌려 벗이 없는 '산중'에서 '만고 인물'을 생각하는 것에는, 정신적 세계에 주목하는 태도가, 적절한 상황에 놓인 인물의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 화자는 만족스러운 성산의 모습(외적 풍경)을 인식하다 관심을 돌려 '산중'에서 '만고 인물'을 생각하고 있다. 즉, 화자의 시선이 외부 세계에서 내면세계로 이동하고 있는 것(성찰)이다. 이때 화자가 '만고 인물'을 생각하게 된 것은,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 두고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 적적하다: 조용하고 쓸쓸하다. [용례] 그는 가족도 없이 혼자 적적한 생활을 하고 있다.

⑤ 세상을 등진 인물의 삶을 '기산'의 '고블'에 비유한 것에는, 험한 세사와의 단절과 은거 지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인물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드러난다.

→ 화자는 '기산'의 '고블'의 삶을 통해 '세상을 등진 인물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고블'은 천하를 주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귀를 씻을 정도로 속세와 거리를 두며 자연에서 은거하고자 했던 인물이다. 화자는 '고블'의 선택을 두고 '지조(변하지 않는 마음)가 높다'고 평가하는데, 이를 통해 화자의 세사와의 단절과 은거 지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②	③	④	⑤
화자	42%	8%	21%	17%	9%
언매	50%	6%	20%	16%	8%

[보기 분석]

- ✓ (가)의 화자는 속세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자연에서 은거하는 삶에 온전히 익숙해지지 않았기에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그래서 1)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을 지향하고 2) 현재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온전히 동화되지 못해 자연을 지향하고 있다.
- ✓ 이때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인 자연은 이상 세계이자, 탈속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 또한 〈보기〉에 따르면, 자연에는 고고한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가)의 화자가 하늘(조물주)가 만든 자연을 인식하며 이를 예찬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결국 〈보기〉의 '고고한 가치'는 곧 하늘의 이치를 의미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정답 맞히기]

① (가)의 '옹'은 피리 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고, (나)의 '생매'는 고고한 취향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이군.

→ (가)는 자연을 탈속적 공간이자 이상 세계로 인식한다. 화자는 목동의 피리 소리를 들으며 석양이 지는 저녁 무렵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강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러한 탈속적 분위기를 화자는 '물 아래 잠긴 용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 잠에서 깨어날 듯'이라고 말함으로써 환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나)는 자연을 향유·유희의 대상이자 현실적 공간으로 인식한다. '생매'를 통해 '뺨 사냥'을 하는 것은 화자가 자연에서 즐기는 놀이의 일부로, 하늘의 이치(고고함)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피하기]

② (가)의 '학'은 이상적 세계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소재이고, (나)의 '고기'는 풍요롭고 생동하는 세계를 표현하는 소재이군.

→ (가)의 화자는 자연을 탈속적 공간이자 이상 세계로 인식한다. 이러한 화자의 인식은 물안개 속에서 제 깃을 버리고 날아오르는 '학'의 이미지를 통해 한층 아름다운 자연 세계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 (나)는 '고기'를 통해 생동감 넘치고 풍요로운 자연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③ (가)의 '소선', '적선'은 청정한 강호의 세계에서 떠올린 인물의 이미지이고, (나)의 '선관'은 '나'가 현재의 행위를 함께 하고 싶은 인물을 멋스럽게 표현한 이미지이군.

→ (가)의 '소선(소동파)', '적선(이태백)'은 화자가 청정한 강호의 세계(자연)에서 떠올린 인물의 이미지다. 이들은 각각 중국 송대와 당대의 시인들로서 특히 자연 세계에 몰입된 경지를 시에 담았던 작가들이다.

→ (나)의 '선관'은 화자 '나'가 낚시를 함께 하고 싶은 인물을 멋스럽게 표현한 이미지다.

④ (가)의 '산옹'은 계절에 따른 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 세계의 삶을 지향하는 인물이고, (나)의 '나'는 사냥과 고기잡이를 통해 현실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인물이군.

→ (가)의 '산옹'은 화자이다. 화자는 계절에 따른 산(자연)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 세계(자연)에서의 삶을 지향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 (나)의 '나'는 화자이다. 화자는 자연 속에서 사냥과 고기잡이를 통해 현실적 즐거움을 향유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⑤ (가)의 '술'은 강호에서 세상에 대한 시름을 달래 주는 소재이고, (나)의 '술병'은 풍류의 장에 흥취를 더해 줄 소재이군.

- (가)는 속세와 단절되어 자연 속에서 은거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는 것에서 찾아오는 내적 갈등이 드러난다. ‘술’은 이러한 화자의 내적 갈등을 완화하는 소재다.
- (나)는 현실적 공간이자 풍류와 유희를 즐기는 공간으로 설정된 자연의 모습이 나타난다. ‘술병’은 이러한 풍류의 장(자연)에서 화자가 느끼는 흥취를 고조하는 소재다.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이육사, 「교목(喬木)」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김중길, 「고고(孤高)」 -

4번 ~ 8번

4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②	③	④	⑤
13%	4%	12%	15%	56%

[정답 맞추기]

⑤ (가), (나), (다)에는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담겨 있다.

→ (가)의 화자는 ‘교목’에게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라고 말하는데, 이는 ‘봄이 오더라도 꽃을 피우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교목’이 지조와 절개를 지닌 대상임을 고려한다면, 화자는 봄이 오더라도 꽃을 피우지 않는 것이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봄’은 꽃을 피울 시기이지만, 해당 구절을 통해 봄이 오더라도 꽃이 필 수 없을 정도로 부정적인 상황임을 드러내어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제시 및 강조한 것이다 또한, 화자는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라고 말한다. 이는 ‘낡은 거미집’을 휘두르고 있지만 ‘끝없는 꿈길’에 설레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뉘우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즉 올바른 모습이라는 확신을 드러내는 표현이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끝없는 꿈길’은 화자가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저항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자는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함으로써, 다시 한번 부정적인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에는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 즉 지조와 절개, 저항 정신, 초월 의지 등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 (나)의 화자는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고 말한다. 이때 ‘푸른 산’과 ‘흰 구름’은 ‘흰색과 푸른색의 대비’를 드러내므로 ‘희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내 머리 위에 항상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이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사’는 것에 ‘비유’되었으므로, 화자가 항상 희망을 생각하며 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화자는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라고 말하는데, 이를 통해 자신이 연약할지라도 굳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화자는 ‘뼈에 저리도록 ‘생